



수원시 1인가구 유형분석과 정책수요

박민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farnia@suwon.re.kr
한연주 연구기획팀 팀장
김재이 위촉연구원
정보라 위촉연구원

요약

I 수원시 1인가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4가지로 유형화

- 집단1: 생활안정형 - 주거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이 높은 집단
- 집단2: 능동행복형 - 삶의 질이 가장 높고 자발적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집단
- 집단3: 잠재위기형 - 일자리, 주거가 불안하고 사회적 고립 비율이 높은 집단
- 집단4: 다중결핍형 -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모두가 불안하며 비자발적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집단

II 수원시 1인가구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정책은 건강과 주거

- 4개 집단 모두 현재 관심사(1순위)는 건강관리이며, 시급한 정책은 주거정책으로 인식
-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모두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큰 어려움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어려움을 꼽음

정책제언

I 수원시 1인가구의 특성에 기반한 집단별 맞춤형 정책 필요

-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반려동물을 키울 의사 높은 집단. 반려동물 양육을 통해서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서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 필요
-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일상생활 불편을 주로 혼자 해결하며 사회적 관계망이 낮은 집단. 현재 수원시는 수원 ON 청년, 중장년 수다살롱, '뜨개뜨개'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능동행복형, 다중결핍형) 공유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 서울시는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하여 1인가구를 위한 공유 주택 공급 예정. 수원시도 1인가구 주택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주거유형 공급 필요
-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혼자 아프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높은 집단. 웰다잉 교육을 통해 웰리빙(Well Living) 할 수 있는 지원 필요

1 1인가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유형화 분석

□ 수원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1인가구 유형화한 결과 4가지로 구분

- 1인가구 생애주기, 삶의 모습, 경제적 수준 및 형성원인 등에 따라 생활실태와 정책수요 다양, 1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형화 분석 실시
 - 1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통해 연령, 성별, 혼인상태, 학력,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유형화 시도
 - 서울시: 2008년 처음으로 1인가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1인가구를 유형화 하였으며, 2022년에는 1인가구의 형성원인(자발, 비자발), 고용·주거 안정성에 기반하여 4가지로 유형화
 - 인천시: 2022년 1인가구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군집분석을 진행하였고 화이트싱글, 블루싱글, 실버싱글로 유형화
-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의 삶의 질 판별 문항(13개)¹⁾을 기준으로 4개 잠재집단 도출
 - 집단1: 생활안정형 - 주거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이 가장 높은 집단
 - 집단2: 능동행복형 - 삶의 질이 가장 높고 자발적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
 - 집단3: 잠재위기형 - 일자리, 주거가 불안하고 사회적 고립 비율이 높은 집단
 - 집단4: 다중결핍형 -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모두가 불안하며 비자발적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

2 수원시 1인가구 유형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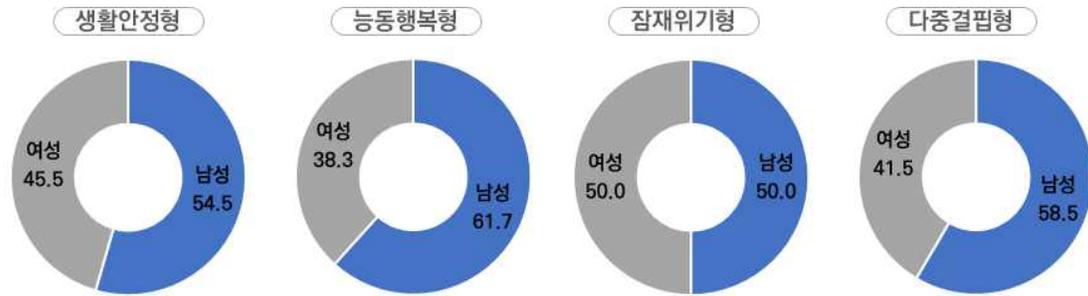
■ 2-1 인구사회학적 특성²⁾

-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능동행복형'은 영통구, 청년, 미혼, 고학력자, 관리전문직 비율 높고, 삶의 질이 가장 낮은 '다중결핍형'은 팔달구, 중장년, 이혼 또는 별거, 고졸 이하, 블루칼라 비율 높게 나타남
 - '생활안정형'은 권선구, '능동행복형'은 영통구, '잠재위기형'은 장안구, '다중결핍형'은 팔달구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생활안정형'과 '능동행복형'은 청년 비율, 대학교 졸업 비율이 높고, '잠재위기형'과 '다중결핍형'은 중장년과 노년 비율이 높으며 고졸 이하 비율 높음
 - 4개 집단 모두 미혼 비율이 높은 가운데, '잠재위기형'은 사별 비율, '다중결핍형'은 이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생활안정형'은 화이트칼라, '능동행복형'은 관리전문직, '잠재위기형'과 '다중결핍형'은 블루칼라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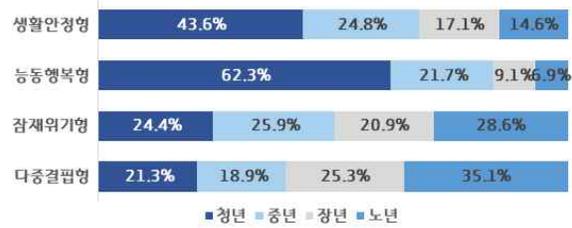
1) 삶의 질 변수(13개): 나의 생활수준 / 나의 건강 / 내가 삶에서 성취한 것 / 가족관계 / 나의 개인적인 관계 / 나의 안전 /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 미래 안정성 /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 지역사회 환경의 질 /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반 / 내가 하는 일 / 나의 경제적 수준

2) 총 1,07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생활안정형 404명(37.6%), 능동행복형 175명(16.3%), 잠재위기형 402명(37.4%), 다중결핍형 94명(8.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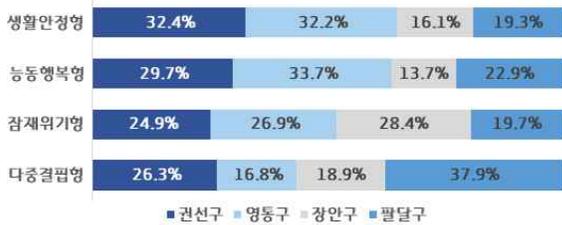
<인구사회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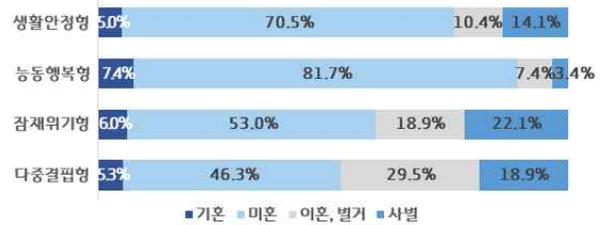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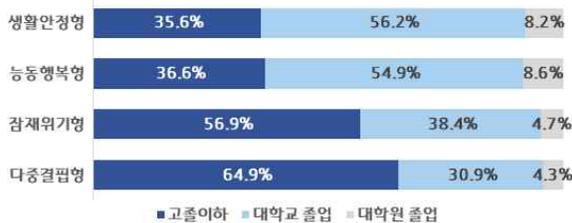
[평균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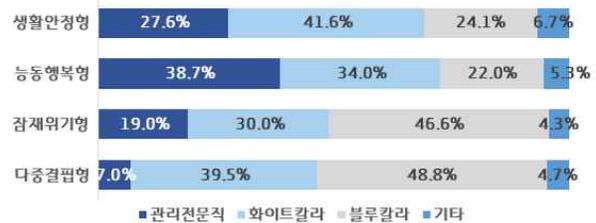
[세대별]



[지역별]



[혼인상태별]



[학력별]

[직업별]

2-2 수원시 1인가구 유형별 특성

- '생활안정형'은 수원시 1인가구의 37.6%, 주거안정성과 건강만족도 높으며 미래 준비도 보통 수준
 - 평균연령 42.3세, 혼자 산 기간은 8.9년이며, 자발적 이유로 1인가구가 된 비율 70.5%
 - 일자리 있음 비율(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제외)은 77.9%이며, 상용직 60.8%, 화이트칼라 비율 41.6%이며, 월평균 소득 287.9만원
 - 주거 안전성은 59.9%로 다른 집단보다 높고 주거비 부담정도, 주거불안 경험 낮음
 - 신체, 정신 건강 모두 좋고 외로움, 사회적 고립, 은둔, 자살 등 부정적 인식 낮음
 - 대면, 비대면 소통 높고 단체활동 경험과 사회적 관계망 모두 높음

<생활안정형 특성>



37.6%

- ✓ 평균연령 42.3세, 혼자산 기간 평균 8.9년
- ✓ 삶의질 65.7점(평균 이상)
- ✓ 주거 안정성, 건강 만족도 높으나 미래 준비도 보통 수준인 집단

인구학적특성	삶과 인식	어려움	경제활동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선구(32.4%), 영통구(32.2%) • 청년 남성, 청년 여성, 청년 여성 • 미혼(70.5%) • 대졸(5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산기간 8.9년 • 자발 70.5% • 원하는 상대 만나 결혼 • 1인가구 장점 98.8%(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 • 현재 관심사: 건강관리-재테크-연애/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든점)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식사해결 어려움 • (심리적 어려움) 79.5%(평균이하), 혼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있음(실업자, 비경제활동 제외) 77.9% • 상용직 60.8% • 화이트칼라 41.6% • 월평균 소득 287.9만원 • 중위소득 50이하 13.6% • 생계급여 지급기준 이하 5.7% • 노후준비율 보통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 경험 낮음 • 가족돌봄 경험 높음(부양가족 있음) • 생활비 부족경험 낮음 • 생활비 보조 경험 보통(주거비, 생활비) • 다자원 빈곤 보통수준
주거	안전	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단독주택 • 주거 안정성(자기+전세: 59.9%) • 주거비 부담정도 낮음 • 주거 불안 경험 낮음 • 주거 환경으로 인한 위축, 불편함 낮음 • 수원거주의향 7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갓길, 방치된 공간 위험 • 노출된 범죄 유형 사기죄, 폭행 • 범죄나 재산 보호를 위해 밤에 자기전에 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정신건강 좋음 • 외로움 낮음 • 외로움 대처: 오락활동, 취미활동 • 사회적고립, 은둔, 자살생각 모두 평균 이하 • 먹거리 불안정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 유튜브, 블로그, SNS 검색, 운동을 통한 여가활동 • 여가시간 충분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비대면 소통 높음 • 단체활동 경험 높음 • 사회적 관계망 높음

○ ‘능동행복형’은 소득과 주거 안전, 신체·정신건강 모두 좋고 여가와 사회적 관계망 높은 집단

- 수원시 전체 1인가구의 16.3%를 차지하며, 평균연령 35.0세, 혼자 산 기간은 7년이며, 자발적 이유로 1인가구가 된 비율 81.8%
- 일자리 있음 비율(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제외)은 85.6%이며, 상용직 68.4%, 관리전문직 비율 38.7%, 월평균 소득 317.7만원. 4개 집단 중 일자리 안정성 가장 높은 집단
- 주거 안정성은 50.5%이며, 주로 아파트, 단독주택 거주함. 주거비 부담정도와 주거 불안 경험 낮음
- 생활안정형과 동일하게 신체, 정신건강 모두 좋고 외로움, 사회적 고립, 은둔, 자살 등 부정적 인식 낮음
- 대면, 비대면 소통 높고 단체활동 경험과 사회적 관계망 모두 높음

<능동행복형 특성>



16.3%

- ✓ 평균연령 35.0세, 혼자산 기간 평균 7년
- ✓ 삶의질 83.0점(높음)
- ✓ 소득과 주거 안전, 신체·정신건강 모두 좋고 여가와 사회적 관계망 높은 집단

인구학적특성	삶과 인식	어려움	경제활동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통구(33.7%), 권선구 29.7% • 청년 남성, 청년 여성, 중년 남성 • 미혼(81.7%) • 대졸(5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산기간 8.9년 • 자발 81.8% • 원하는 상대 만나 결혼 • 1인가구 장점 98.3%(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 • 현재 관심사: 건강관리-연애/결혼/재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든점)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식사해결 어려움 • (심리적 어려움) 65.3%(평균이하), 혼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있음(실업자, 비경제활동 제외) 85.6% • 상용직 68.4% • 관리전문직 38.7% • 월평균 소득 317.7만원 • 중위소득 50이하 14.8% • 생계급여 지급기준 이하 6.9% • 노후준비율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 경험 낮음 • 가족돌봄 경험 낮음(부양가족 있음) • 생활비 부족경험 낮음 • 생활비 보조 경험 높음(주거비, 생활비) • 다자원 빈곤 낮음
주거	안전	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단독주택 • 주거 안정성(자기+전세: 50.5%) • 주거비 부담정도 낮음 • 주거 불안 경험 낮음 • 주거 환경으로 인한 위축, 불편함 낮음 • 수원거주의향 7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갓길, 방치된 공간 위험 • 노출된 범죄 유형 사기죄, 폭행 • 범죄나 재산 보호를 위해 밤에 자기전에 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정신 신체 건강 좋음 • 외로움 낮음 • 외로움 대처: 오락활동, 취미활동 • 사회적고립, 은둔, 자살생각 모두 평균 이하 • 먹거리 불안정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 유튜브, 블로그, SNS 검색, 운동을 통한 여가활동 • 여가시간 충분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비대면 소통 높음 • 단체활동 경험 높음 • 사회적 관계망 높음

○ ‘잠재위기형’은 경제안정성 낮고 주거 불안 높으며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 모두 높은 집단

- 수원시 전체 1인가구의 37.4%를 차지하며, 평균연령 50.7세, 혼자 산 기간은 11.3년이며, 자발적 이유로 1인가구가 된 비율 51.0%
- 일자리 있음 비율(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제외)은 62.8%이며, 상용직 49.1%, 블루칼라 비율 46.6%, 월평균 소득 226.8만원
- 주거 안정성은 57.7%이며, 주로 단독주택, 아파트에 거주함. 주거비 부담 정도가 높고 주거 불안 경험은 낮음
- 건강상태 나쁘며 외로움, 사회적 고립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먹거리 불안정 또한 높음
- 대면, 비대면 소통 높으나 단체활동 경험과 사회적 관계망 모두 낮음

<잠재위기형 특성>

 3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연령 50.7세, 혼자 산 기간 평균 11.3년 ✓ 삶의 질 48.0점 ✓ 경제안정성 낮고 주거불안 높음. 건강상태 점차 나빠지고 사회적 외로움과 고립 모두 높은 집단 				
인구학적 특성	삶과 인식	어려움	경제활동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안구(28.4%), 영통구(26.9%) 노년 여성, 노년 남성, 장년 남성 미혼(53.0%), 이혼(15.7%), 사별(22.1%) 고졸이하(5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자 산기간 11.3년 자발 51.0% 자금처럼 혼자 현재관심사: 건강관리-진로-재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힘든점)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 87.0%, 혼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있음(실업자, 비경제활동 제외) 62.8% 상용직 49.1% 블루칼라 46.6% 월평균 소득 226.8만원 중위소득 50이하 23.4% 생계급여지급기준 이하 8.2% 노후준비율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서비스 경험 보통 가족돌봄 경험 보통 생활비 부족경험 높음 생활비 보조 경험 보통(생활비, 주거비) 다차원 빈곤 보통수준
주거	안전	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아파트 주거 안정성(자기+전세) 57.7% 주거비 부담정도 높음 주거 불안 경험 낮음 주거 환경으로 인한 위축, 불편함 높음 수원거주의향 8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찮길 방지된 공간 위험 노출된 범죄 유형 폭행, 사기죄 범죄나 재산 보호를 위해 밤에 자기전에 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 정신건강 나쁨 외로움 높음 외로움 대처: 오락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음 사회적 고립 높음 은둔, 자살생각 보통 먹거리 불안정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식, 유튜브, 블로그, SNS 검색, 컴퓨터 게임 등 통한 여가활동 여가시간 충분성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면, 비대면 소통 높음 단체활동 경험 낮음 사회적 관계망 낮음

○ ‘다중결핍형’은 경제, 주거, 사회적 안전망 모두 불안한 집단

- 수원시 전체 1인가구의 8.7%를 차지하며, 평균연령 53.9세, 혼자 산 기간은 15.3년이며, 비자발적 이유로 1인가구가 된 비율 56.8%
- 일자리 있음 비율(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제외)은 45.8%이며, 상용직 비율 39.6%, 월평균 소득 165.8만원
-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이 46.8%이며, 생계급여 지급 기준 이하 28.4%
- 주거 안정성은 23.4%이며, 주로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에 거주함. 주거비 부담정도, 주거불안, 주거 환경으로 인한 위축, 불편함 모두 높음
- 건강상태 나쁘며 외로움, 사회적 고립, 은둔, 자살생각 높음. 먹거리 불안정 높음
- 대면 소통 낮고 단체활동 경험과 사회적 관계망 낮음

<다중결핍형 특성>

8.7%

- ✓ 평균연령 53.9세, 혼자 산 기간 평균 15.3년
- ✓ 삶의질 27.8점
- ✓ 경제, 주거, 사회적 안전망이 불안한 집단

인구학적 특성	삶과 인식	어려움	경제활동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구(37.9%), 관선구(26.3%) • 노년 남성, 장년 남성, 노년 여성 • 미혼(46.3%), 이혼(27.4%), 사별(18.9%) • 고졸이하(6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산 기간 15.3년 • 비자발 56.8% • 원하는 상대 만나 결혼 • 현재 관심사: 건강관리-주거/진로-재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든점) 경제적 어려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어려움 • (심리적 어려움) 90.5%, 혼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있음(실업자, 비경제활동 제외) 45.8% • 상용직 39.6% • 블루칼라 48.8% • 월평균 소득 165.8만원 • 중위소득 50이하 46.8% • 생계급여 지급기준 이하 28.4% • 노후준비율 최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 경험 높음(전문서비스) • 가족돌봄 경험 높음(간병이 필요한 가족) • 생활비 부족 경험 높음(78.9%) • 생활비 보조 경험 낮음 • 다자원 빈곤 높음
주거	안전	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 주거 안정성(자가+전세) 23.4% • 주거비 부담 정도 높음 • 주거 불안 경험 높음 • 주거 환경으로 인한 위축, 불편함 높음 • 수원거주의향 8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갓길, 거주하는 건물 외부공간 • 노출된 범죄 유형 폭행, 사기죄 • 범죄나 재산 보호를 위해 밤에 자기전에 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정신 건강 나쁨 • 외로움, 사회적 고립, 은둔, 자살생각 높음 • 외로움 대처 아무것도 하지 않음, 오락활동 • 먹거리 불안정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 유튜브, 블로그, SNS 검색, 운동을 통한 여가활동 • 여가시간 충분성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소통 낮음(월 1회 미만) • 단체활동 경험 낮음 • 사회적 관계망 낮음

2-3 수원시 1인가구 유형별 정책수요

- 1인가구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정책은 주거지원 정책(1인가구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 4개 집단 모두 1인가구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정책은 주거지원정책-경제적 지원정책이라고 인식
 - '잠재위기형'은 경제적 지원정책(다양한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교육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다중결핍형'은 안전 정책(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안심 귀가 도우미)에 대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공유주택 거주 의향은 '능동행복형'과 '다중결핍형'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공유주택 거주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점으로는 낮은 주거비로 나타남

<정책수요>

구분	전체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시급 정책	1순위	주거지원정책	주거지원정책	주거지원정책	주거지원정책	주거지원정책
	2순위	경제적 지원정책				
	3순위	건강 지원정책	건강 지원정책	건강 지원정책	건강 지원정책	안전 정책
공유주택 거주 의향	18.9%	18.3%	22.9%	16.7%	23.2%	
공유 주택 거주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점	1순위	낮은 주거비				
	2순위	개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주거 공간 확보	개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주거 공간 확보	개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주거 공간 확보	개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주거 공간 확보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 교통이 편리한 위치
반려동물 보유율	9.9%	9.7%	9.7%	8.7%	15.8%	
반려동물 키울 의사	24.3%	26.8%	28.3%	19.7%	26.3%	

3 정책제언

□ 수원시 1인가구 정책은 건강, 주거 정책을 공통으로 추진하되, 유형별 맞춤 정책 필요

○ 수원시 1인가구는 공통적으로 건강관리,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 주거 정책을 필요로 함

- 4개 집단 모두 현재 관심사 1순위는 건강관리이며, 시급한 정책은 주거정책으로 인식함. 현재 수원시는 1인가구의 신체 및 정신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수도검침을 통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며, 청년 월세지원, 수원전월세 상담센터 등을 통해 1인가구의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모두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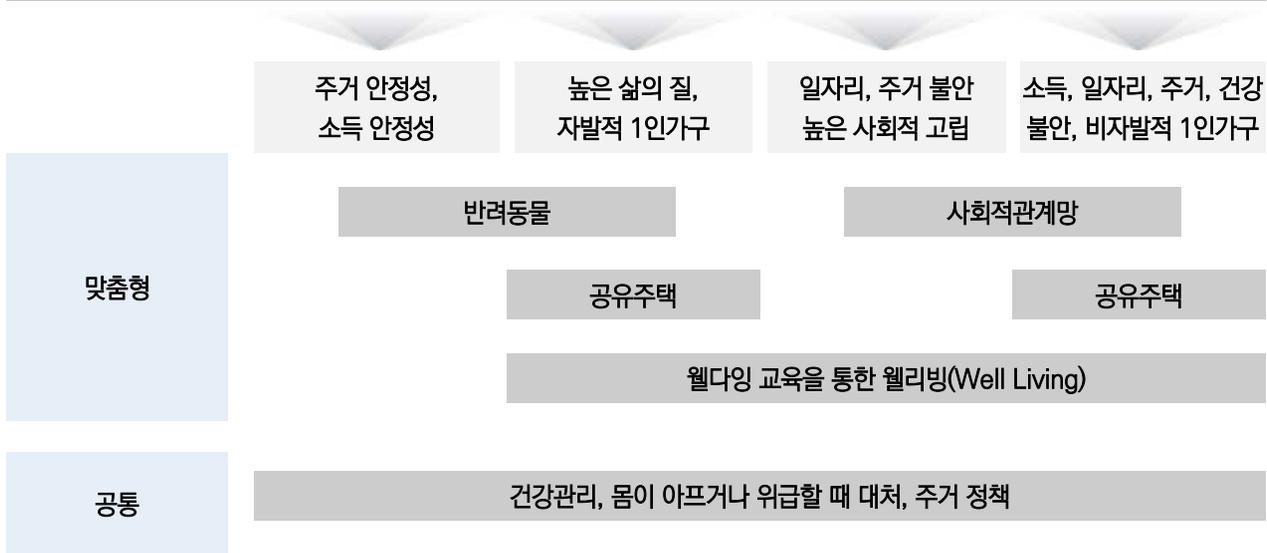
○ 수원시 1인가구 유형별 맞춤 정책 필요

-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1인가구는 9.7%, 향후 반려동물을 키울 의사는 26.8~28.3%
→ 반려동물 양육은 신체적,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인식을 증진시킴(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2018). 수원시 1인가구가 반려동물 양육을 통해서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정서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일상생활 불편을 주로 혼자서 해결하며 사회적 관계망이 낮은 집단
→ 사회적 관계망 정책을 통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망 구축이 중요함. 현재 수원시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³⁾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망이 단절되지 않고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능동행복형’, ‘다중결핍형’: 공유주택에 거주할 의향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
→ 현재 서울시는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하여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공급할 예정임. 수원시도 1인가구 주택 수요에 기반⁴⁾하여 새로운 주거유형(예: 코리빙)을 공급할 필요 있음
-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혼자 아프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높은 집단
→ 웰다잉 교육을 통해 죽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두려움을 해소하여 웰리빙(Well living) 할 수 있도록 지원

구분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지역	권선구, 영통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연령	42.3세	35.0세	50.7세	53.7세	
세대	청년 남성, 장년 여성, 청년 여성	청년 남성, 청년 여성, 중년 남성	노년 여성, 노년 남성, 장년 남성	노년 남성, 장년 남성, 노년 여성	
직업	화이트칼라	관리전문직	블루칼라	블루칼라	
고용형태	상용직	52.9%	57.5%	35.7%	28.1%
	임시일용직	7.9%	10.9%	13.5%	11.5%
소득	287.9만원	317.7만원	226.8만원	165.8만원	
삶의 질	65.7점	83.0점	48.0점	27.8점	
주거	주거안정성 높음 주거비 부담 불안경험 낮음	주거 안정성 보통 주거비 부담 불안경험 낮음	주거 안정성 낮음 주거비 부담 불안경험 높음	주거안정성 낮음 주거비 부담 불안경험 높음	

3) 수원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 수원 ON 청년(우만종합사회복지관), 중장년 수다살롱(건강가정지원센터), ‘뜨개뜨개(여성 독거 노인 뜨개질 나눔 동아리)’
 4) 공유주택 거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점으로는 낮은 주거비이며, ‘능동행복형’은 개인 사생활 보장, ‘다중결핍형’은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편리한 교통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구분	생활안정형	능동행복형	잠재위기형	다중결핍형
건강	신체, 정신 건강 좋음	신체, 정신 건강 좋음	신체, 정신 건강 나쁨	신체, 정신 건강 나쁨
식생활	먹거리 안전성 높음	먹거리 안전성 높음	먹거리 안전성 낮음	먹거리 안전성 낮음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립, 은둔, 자살생각 평균 이하	사회적 고립, 은둔, 자살생각 평균 이하	사회적 고립 높으나 은둔, 자살생각 보통	사회적 고립, 은둔, 자살생각 높음
사회적 관계망	소통 빈도 높고 단체활동 경험 높음 사회적 관계망 높음	소통 빈도 높고 단체활동 경험 높음 사회적 관계망 높음	소통빈도 높으나 단체활동 경험 낮음 사회적 관계망 낮음	소통빈도 낮고 단체활동 경험 낮음 사회적 관계망 낮음
1인가구 원인	자발 70.5%	자발 81.8%	자발 51.0%	비자발 56.8%



✓ 수원시 1인가구 실태조사

- 조사목적 : 수원시 1인가구 실태를 파악하여 수원시 1인가구 정책수립에 기여
- 조사대상 : 수원시 거주 1인가구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75명
- 조사방법 : 혼합조사(40대 이하 웹조사, 50대 이상 웹조사, 대면조사 병행)
- 조사시기 : 2024.03.28.-2024.04.24
- 조사내용 : 1인가구의 삶, 인식, 경제, 주거, 안전 등 총 9개 영역, 124개 문항

■ 참고문헌

김성아, 박민진, 김정아, (2022), 서울시 1인가구 외로움 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서울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2018),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 보고서.
 변미리, 신상영, 조권중. (2008) 서울시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변미리, 최정원, 박민진, 이혁준, 김진아. (2015),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안현찬, 김승연, 변금선, 김성아, 남원석, 박은숙, 최현임, 박민진, 문진영, 박지선, (2022).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서울연구원.
 정혜은, (2022), 인천시 1인가구 특성과 정책 방향. 인천연구원.
 '대한민국, 나혼자 산다'...증가하는 1인가구와 반려동물 상관관계(한국반려동물 신문, 2022년 6월 30일자)

※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